

환자에서 댄서로, 창의성을 춤추기*

Dance for PD® 프로그램에 내재된 미학적 특징 분석

제 환 정**

I. 서론	IV. 결론
II. 마크 모리스 그룹의 예술적 특징	참고문헌
III. Dance for PD®의 분석; 예술을 예술의 방식으로 가르치기	Abstract

I. 서론

Dance for PD®는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환자와 그들의 가족, 돌보미등을 대상으로 특화된 무용프로그램이다. 약칭인 PD®로도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2001년 미국의 대표적인 현대무용단인 마크 모리스 댄스 그룹(Mark Morris Dance Group, 이하 MMDG)이 브룩클린 파킨슨 그룹(Brooklyn Parkinson Group)과 함께 개발하였다. MMDG의 무용수인 데이비드 로벤탈(David Leventhal)의 감독 아래 확장되어 현재는 뉴욕 시내의 8개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 20개국 100개 이상의 지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파킨슨병은 치매 다음으로 흔한 대표적인 퇴행성 뇌 질환으로 500명중 한명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것은 흑질 도파민 신경세포의 소실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있으나, 가족력의 연관성이나 병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1)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은 서동증(운동 느림), 안정 시 떨림, 근육 강직 등의 운동장애 등이다. 파킨슨병은 대개 수년에 걸쳐 증상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발병 시기를 알기 어렵다. 또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운동장애가 진행되어 보행 같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운동기능에 제한을 지닌 파킨슨병 환자가 복잡한 리듬에 맞추어 춤을 출수 있을까.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무용을 연구해온 연구자들은 파킨슨 환자도 속도와 리듬의 조절을 통해 얼마든지 춤을 출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8027202)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강의를 담당교수, jaehj07@gmail.com

1) 서울대학교 의학정보, 파킨슨병,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6702&cid=51007&categoryId=51007>, 2019. 2. 16.>.

수 있으며, 춤이 환자들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돕는다고 주장한다.²⁾

파킨슨 환자를 위한 춤의 장점에는 인지력의 향상, 자기 효능감의 향상, 그리고 우울증 감소를 들 수 있다. 예컨대, 영국 국립 발레단(English National Ballet)에서는 발레『로미오와 줄리엣』을 파킨슨병 환자들의 난이도에 맞게 응용하여 12번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 효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사라 휴스턴 박사는, 비록 무용 활동이 단계적인 발전은 아닐지라도 단기간에 환자들의 이동능력을 향상시켰으며, 특히 음악반주가 동반될 때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무용 수업이 척추주위의 근육들을 이완시키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안정성을 갖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았다. 나아가, 웰빙, 결정력, 성취감의 감정을 갖고 더 나은 사회적 접촉을 하는 것을 춤이 장려했다고 분석했다.³⁾ 이러한 결과들은 춤이 파킨슨병의 증세를 완화시켜주는 치유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의 치유적인 효능이 아닌, 예술적 특성은 어떠한가. Dance for PD®는 애초에 파킨슨병의 치유나 증상완화가 최우선 목표가 아니라, 환자들을 위한 “예술적 활동”으로 출발하였다. Dance for PD®의 교재에는 “당신은 치료사가 아니라, 티칭 아티스트다”(You are teaching artists, not therapists)라는 말이 강조된다.⁴⁾ 즉, 무용 환자들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무용 치료가 아니라, 이들이 “환자라기보다는 무용수”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탐험하는 예술적 경험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 Dance for PD®의 교사양성 프로그램은 반복적으로 무용치료가 아니라 무용교육임을 강조하며, 무용이 지니는 미학적 특징을 이용한 무용 교육적 측면을 강조 한다.⁵⁾

Dance for PD®는 그동안 대표적인 무용교육 사례로 손꼽혀왔으나,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접근은 과학적, 의학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그동안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대상자들의 신경학적, 생물학, 혹은 약제학의 효능과 반응을 다루고 있으며, 의학 잡지와 논문에서 다루고 있다. 이는 노인인구가 폭증하는 세계적 흐름과 더불어 파킨슨병에 대한 무용 수업이 증가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무용예술의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의 가치를 다루는 접근은 많지 않다.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는 뉴욕과 런던의 무용전문지, 신문사, 캠프가 열리는 지역 신문 등에서 매해 수업의 소식, 가치, 인물들을 소개해왔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지니는 예술적, 미학적 특징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목이 없다. 국내에서는 마크 모리스의 예술적 특성에 대한 이지원⁶⁾등의 논문이 존재하나, Dance for PD® 프로그램을 소개 한 것은 2018년 이정희의 논문이 처음으로 꼽힌다.

이 연구에서는 Dance for PD®의 효능이 아니라, 예술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 기능성의 향상이나 완수를 위한 분화된 움직임(movement) 수업이 아니라, 미학적 맥락이 유지되는 복합적인 무용(dance) 활동이 가능한지를 살펴본다. 즉, 어떻게 무용이 인지적, 신체적 제한을 지닌 이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창의성이나 음악성 같은 예술적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본다.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이 지향점이 어떻게 엘리트 무용수와 작품을 넘어, 제한된 신체와 질병을 지닌 대상들에게 확산시켜올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데 의의를 둔다. 특히 무용

2) S. Houston and A. McGill(2013), A mixed-methods study into ballet for people living with Parkinson's, *Arts & Health: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5(2), p.105.

3) Ibid., p.105.

4) Dance for PD®의 Introduction 코스의 핸드아웃 중 제3장 <Teaching Techniques>에서 발췌.

5) 이정희(2018), 파킨슨을 위한 무용교육프로그램: Dance for PD®, 『무용역사기록학』 51, p.129.

6) 이지원(2001), 마크 모리스의 성적 표현과 이미지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7, pp.151-169.

문화교육이 어떻게 “예술” 혹은 “춤추는 신체”의 상대적 우월성에 의해 주변화 되어온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가를 살펴보는가를 의의를 지닌다. 둘째, 공공성의 측면에서 확장되고 있는 무용 문화예술교육의 최전선에서 움직임이 제한된 그룹을 대상으로 하면서, 어떻게 무용예술의 특징들을 포기하지 않고 유효하게 구현하는지를 설명한다. 즉, 대상의 움직임 수행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춤의 미학적 특징들을 단순화시키고 예술적 수준을 양보하는 대신, 여전히 미학적 판단, 창의적 결정이 발생하는 예술성을 드러내는가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분석은 현장에서 일하는 티칭 아티스트들과 그들을 교육하는 고등교육에서 참조할만한 구체적인 사례, 혹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는 문화예술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노인인구가 폭증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무용문화예술교육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본 연구자는 관련 문헌과 홍보자료, 관련기사 등의 문헌을 참조하는 한편, MMDG에서 진행하는 Dance for PD® 교육자과정을 이수 하였다. 2018년 7월 영국의 People Dancing 워크숍에서 Dance for PD®의 프로그램 디렉터이자 리드 트레이너인 데이비드 레벤타의 레벨 1-2 프로그램을 수료하였으며, 2018년 10월 전문무용수 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어드밴스드 과정에서 레벨 3-4를 완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구성의 분석을 위해 교육자과정에서 공유된 핸드아웃, 수업내용, 홈페이지의 자료 등을 참조하였으며, 환자와 연구자들을 위해 제작된 공식 DVD를 참조하였다.

Dance for PD®는 MMDG의 지원에 의해 기획되고 전파되고 있으나, 현재 세계에서 탭, 라틴댄스, 발레, 민속무용등 다양한 형태의 춤과 접목하고 있으며, 무용단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둔다. 첫째, Dance for PD®의 철학과 미학적 특징을 파악하는데 있어 MMDG의 무용수이자 프로그램의 창시 멤버중 하나인 데이비드 레벤타의 수업과 강좌에 초점을 맞춘다.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관찰과 분석을 위해 마크모리스그룹에서 DVD로 제작된 클래스 영상을 참조하였다. 둘째, Dance for PD®는 마크 모리스의 예술적 유산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개인 무용가의 춤 양식 전파나 확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다. 본 연구의 의도역시, 무용예술이 신체적 제한을 지닌 대상에게 어떻게 예술적이고 미학적 가치를 유효하게 하는가를 밝히는 것에 있으며, MMDG의 스타일의 확장이나 전파로 해석하고 있지 않음을 밝혀둔다.

II. 마크모리스 댄스그룹의 예술적 특징

Dance for PD®는 2001년 MMDG의 지원 아래 무용수 데이비드 레벤타가 프로그램을 감독 하고 있다. 레벤타는 1997년 MMDG의 무용수로 합류한 이래 40개가 넘는 레퍼토리에서 주요 역할을 맡아 온 무용수다.⁷⁾ Dance for PD®는 마크 모리스가 안무한 레퍼토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무용단의

7) 데이비드 레벤타는 보스턴발레댄스쿨 출신으로 단단한 기본기를 지니고 있는 무용수다. 브라운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였으며 문학적 상상력과 표현력을 가진 무용수로 꼽히며 MMDG의 많은 레퍼토리에서 주요 캐릭터를 맡았다. 2001년 MMDG이 브록클린에 새로운 무용센터를 시작하면서, 파킨슨병 전문 신경과 의사였던 웨스트 하이머의 추천으로 파킨슨 환자를 위한 워크숍을 처음 열게 되었다. 초기에는 소규모의 워크숍으로 진행되었으나, 뉴욕타임즈에 소개되고 신경학 컨퍼런스 등에 초청되면서 점차 참여자가 증가하였다. 레벤타는 프로그램의 설립멤버로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세계의 무용교사들에게 확장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MMDG 공식홈페이지, <<https://markmorrisedancegroup.org/dance-center/about-the-dance-center/instructors/>>

미학적 자산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그 공헌으로 레벤탈은 2016년 세계 파킨슨회의 상(World Parkinson's Congress Award)을 수상하였다. 그는 여전히 뉴욕에서 파킨슨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한편, 콜롬비아 의대(Columbia University's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에서 이야기치료 커리큘럼(Narrative Medicine curriculum)으로 무용기반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가르치고 있다. 그는 여전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 세계를 돌면서 다른 교사들을 훈련시킨다. 그의 활약과 마크 모리스 댄스 그룹의 지원으로 오늘날 Dance for PD®는 11 개국 100 개 이상의 커뮤니티에서 모델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Dance for PD®가 파킨슨환자라는 움직임이 제한된 대상으로 하면서, 어떻게 여전히 무용 예술로서의 풍성한 미학적 특징들을 유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Dance for PD®가 대상으로 하는 참여자들은 파킨슨병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무용학습의 경험이 거의 없는 이들이다. 일반적으로 신체의 운용에 제한이 있거나, 인지적 학습의 속도가 느린 이들을 대상으로 무용교육을 할 때, 티칭 아티스트는 동작을 단순화하거나 반복하는 경향에 빠지기 쉽다. 예컨대, 노년대상의 무용프로그램에서는 가요나 트로트 등의 음악에 맞추어 단순한 율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그와는 반대로, 이 프로그램의 핵심원칙은 “혁신, 창의력, 예술적 탁월성, 협업, 포괄성, 지역 커뮤니티, 상호존중, 즐거움”이다. 춤이 증상완화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환자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이 모델은 동작의 기능적 수행이나 임상적, 실용적 목표에 앞서, 미학적 표현을 목적으로 한다.⁸⁾ 따라서 Dance for PD®는 티칭 아티스트와 참여자의 관계설정을 중요시하며, 상상력, 재미, 유머, 다양한 소통방식을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 예컨대, 티칭 아티스트는 “앞으로 몸을 밀기” 같은 기계적 지시보다는 “따뜻하고 멋진 풀에 뛰어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 “당신이 오스카 상을 받으러 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같은 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하도록 독려 받는다.⁹⁾ 또한 음악의 강조와 더불어 시각요소, 내러티브, 무용 테크닉, 레퍼토리 등 무용의 예술적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Dance for PD®가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것은 MMDG의 레퍼토리와 예술적 자산이다. 마크 모리스는 뛰어난 음악성, 탁월한 유머감각, 에너지 넘치는 동작과 혁신적인 상상력으로 20대 후반부터 세계적 명성을 얻은 안무가다.¹⁰⁾ 그는 뉴욕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Mark Morris Dance Group을 설립했고 140여 편이 넘는 작품을 안무하였다.

그의 예술적 다양성은 종종 상충하는 수식어를 얻게 하였는데, “현대 무용 전통의 마지막 진정한 상속자”¹¹⁾에서 “컨템포러리 댄스의 혁신가”라는 모순 된 견해로 이어진다. “새로운 고전주의”에서 “우리 시대의 정치적 올바름을 깨뜨리는 십자군”¹²⁾까지 폭넓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 모리스의 안무적 과정에 드러나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캐릭터와 내러티브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마크 모리스에 대한 책을 집필한 아코첼라는 “모리스는 훌륭한 이야기꾼”이라 지적한다.¹³⁾ 마크 모리스는 춤의 전통과 클래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Adult-F aculty/David-Leventhal, 2019. 2, 15.).

8) Dance for PD® 공식 홈페이지, <<https://danceforparkinsons.org>, 2019. 2, 15.>.

9) Dance for PD®의 Introduction 코스의 핸드아웃, 제 3장 <Teaching Techniques>에서 발췌.

10) A. Macaulay(2007. 5. 4.), “Mark Morris descends to the underworld[Review of the dance *Orfeo ed Euridice* at the Brooklyn Academy of Music]”, The New York Times 4(E).

11) M. Siegel(1995, Summer), Mark Morris by Joan Acocella, 『TDR』 39(2), p.195.

12) Ibid., p.190.

클래식 작품들을 모던하고 독특한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들을 해왔다. 바로크 오페라를 춤으로 해석한 『디도와 이니아스(Dido and Aeneas)』에서는 선과 악의 역할을 1인2역으로 진행하며 고대 신화를 현대적인 사이코드라마로 변화시켰다. 호두까기 인형을 재해석한 『하드 너트(The Hard Nut)』의 경우, 19세기 부르주아의 집 대신에 1960년대에 미국의 핵가족으로 설정함으로써 이 이야기를 현대화했다. 또한 발레가 지닌 동화적 설정에 벗어나 각각의 캐릭터에 개연성과 현대적 감각을 불어넣어 인간성에 대한 통찰이 담긴 유머 감각을 보여준다. 모리스는 춤과 마임의 구별을 제거하고 캐릭터가 자신의 춤을 통해 자신을 설명 할 수 있게 한다. 프로코피예프의 음악을 기반으로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해피엔딩으로 재해석한 『로미오와 줄리엣, 온 모티브 오브 셰익스피어(Romeo and Juliet, on the Motive of Shakespeare)』의 경우에도, 강력한 비극을 덜어내고, 화해와 희망이 있는 강렬한 러브 스토리로 재탄생시켰다.

둘째, 마크 모리스는 오페라, 클래식 음악, 민속 무용, 글쓰기 등 다양한 장르를 사용하며, 춤을 위해 풍성한 레퍼런스를 사용한다. 그는 설정한 주제에 학자처럼 연구하며 바로크 오페라에서 발칸 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통과 고전을 사용한다. 그는 바로크 댄스, 발레, 초기 현대무용에서 저드슨 그룹에 이르기까지 무용의 역사적 유산을 가장 폭넓게 활용한 안무가중 하나이다. 발레의 유산에 저항한 현대 안무가들과 달리, 마크 모리스는 발레의 움직임은 자신의 안무와 결합시켰다. 『하드 너트』와 『로미오와 줄리엣 온 더 셰익스피어의 모티프』에서 모리스는 발레의 언어를 상당부분 인용하여 재해석한다.

그의 인용은 무용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학과 음악사로도 확장된다. 1986년작 『스트립티즈(Striptease)(1986)』는 철학자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에세이를 소재로 하였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작업할 때는, 음악가 모리스의 프로코피예프 연구를 비롯해,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와 디자인에 관한 책, 로미오와 줄리엣의 할리우드 영화 버전, 르네상스 시대의 제스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문헌을 참조하였다.

셋째, 마크 모리스는 안무의 원천으로서 음악에 크게 의존하며 음악성의 섬세한 구조를 안무에 반영한다. 춤을 음악에서 독립하려는 시도를 했던 포스트모던 안무가와는 달리 모리스는 거의 언제나 음악에서 춤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안한다.¹⁴⁾ 그의 유명한 어록 “나는 음악가이고 나의 매체는 움직임이다.”¹⁵⁾ 라는 말처럼, 그는 음악의 영감을 통해 작업한다. 따라서 늘 안무를 시작하기 전에 음악을 듣고 분석하며, 음악의 주제, 구조 및 리듬에 매우 섬세하게 움직임을 구성한다. 그의 작품은 녹음된 음악을 거의 쓰지 않고, 연주자와 함께 공연된다.

넷째, 마크 모리스의 작품은 양극화된 선악 구도를 배제하고 인류애를 강조하는 특징을 지닌다. 모리스의 작품은 클래식 발레의 구조처럼 선악이 뚜렷이 구분되는 것을 지양하며 교훈적인 의미를 주거나 권선징악을 강조하지 않는다. 『디도와 이니아스』, 『하드너트』에서도 드러나듯이 캐릭터들은 다면성을 지닌 인물들로 입체적으로 구현된다. 춤의 오래된 소재인 로맨틱한 사랑과 구원, 화해 같은 따뜻한 휴머니즘을 이야기 하면서도, 인간 본성을 신비하게 미화하는 것을 거절하며, 때로는 시니컬한 웃음거리로 만

13) Acocella(1994), 『Mark Morris』(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p.137.

14) Acocella(1994), p.196.

15) S. Kaufman(2010, 1, 31.), Mark Morris Taking Dance Works Into the Music World, 『The Washington Post』,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10/01/29/AR2010012900202.html>, 2019, 2, 14.>.

든다. 고전발레에서 파생된 아름다운 선과 움직임의 우아함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면서, 발레에 의해 강화된 춤의 고정적인 이미지와 의미를 역설적으로 해체시키기도 한다. 그는 자신의 춤은 항상 취약하고, 오류가 있으며,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사랑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MMDG의 대표적인 무용수이자 Dance for PD®의 프로그램 감독인 데이비드 레벤탈은 그의 작품 세계를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가 관객이 무대에서 즐거기를 희망하는 인간성의 다이나믹한 표현은, 매우 섬세하고 변화가능한 불안정성을 띄고 있다. 춤의 창작자인 우리는 매순간마다 우리의 신뢰, 제어능력, 상처받기 쉬운 감정들을 조율하고, 또 조율한다.”¹⁶⁾ 즉, 그의 작품세계는 따뜻한 인간성을 유지하며, 인간의 불안정성을 끌어안는데 특징이 있다.

III. Dance for PD® 분석; 예술을 예술의 방식으로 가르치기

파킨슨병은 움직임을 시작하는 능력, 걸음걸이의 진폭을 조절하고, 움직임을 처리하는 능력을 떨어뜨린다. 환자들은 병의 증세로 신체의 떨림, 편두통, 근육의 경직, 운동의 느림 등을 겪는다. 이 질병은 춤의 신체적 확장성이나 유연성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그렇다면, 왜 파킨슨병에 춤이 필요한지, 마크 모리스 무용단은 춤의 의미와 효용성을 이렇게 강조한다.

1. 춤은 유연성을 발전시키고 자신감을 심어준다.
2. 춤은 정신활동을 자극하여 정신과 신체를 연결한다.
3. 춤은 고립감을 깨어준다.
4. 춤은 움직임의 흐름을 통해서 이미지의 상상을 자극한다.
5. 춤은 보고, 듣고, 촉감에 집중하며, 움직임과 균형을 돕는 도구가 된다.
6. 춤은 공간 속에서 신체 부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7. 춤은 스토리가 있다.
8. 춤은 창의성을 촉발시킨다.
9. 춤의 기본은 리듬이다.
10. 춤의 핵심은 즐거움이다.¹⁷⁾

이처럼 Dance for PD®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차별성은 테라피가 아닌, 예술로서의 춤에 목적을 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참여자들은 환자가 아닌 “무용수”의 정체성을 제안 받으며, 교육자들은 치유자가 아니라 “예술가” “안무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파킨슨 환자들은 춤이 가진 신체의 확장성과 정반대의 진행경로를 필연적으로 갖지만,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을 “환자”가 아니라 “댄서”라고 부른다. 레벤탈은 자신의 강연에서 참여자들이 “댄서처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그들의 활동에 엄청난 변화를 준다고 주장한다. 환자가 아니라 댄서로서 접근할 때, 진정한 즐거움과 함께 위에 언급한 춤의 장점들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다.

16) D. Leventhal(2004. 8. 22.), 『Art Journal』, p.45.

17) Why Dance for Parkinson's?, Dance for PD® 공식 홈페이지, <<https://danceforparkinsons.org>, 2018. 2. 15.>.

Dance for PD®이 점차 확장되면서 최근에는 무용가가 아닌 의사, 물리치료사, 등이 관심을 갖지만, 로벤탈은 전문무용수들이 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자들은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기능적인 문제를 겪고 있고 전문무용수는 몸을 컨트롤하는데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프로그램의 우선권을 무용수들에게 두고 프로그램의 예술적 순수성을 지키고 싶다고 주장한다.¹⁸⁾ 무용수들이 파킨슨 병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이 일을 하는데 중요한 능력”이라고 지적한다.

무용예술의 장점을 전면으로 내세운 이 프로그램은, 마크 모리스의 예술적 자산을 적극적으로 공유 하면서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다한다. 데이비드 레벤탈은 모리스 안무의 『세개의 러시아인 서곡 (Three Russian Preludes)』의 한 장면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마크는 이 작품을 바르시니코프를 위해 만들 었죠. 그 다음에 제가 이 장면을 춤추었고, 이제 여러분이 세 번째 댄서입니다”라고 말한다.¹⁹⁾

미하일 바르시니코프 라는 당대 최고의 무용수를 위해 안무한 작품을 이처럼 Dance for PD® 프로그램이 활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남긴다. 예술가의 저작권이나 예술적 고집 위에, “모두를 위한 예술”이라는 명제가 우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MMDG 가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DVD에는 환자들이나 티칭 아티스트가 따라 할 만한 무용단의 레퍼토리가 풍성하다. 『하드 넷』의 러시아 안 댄스, 눈송이요정의 춤은 빈번하게 활용되는 인기 있는 장면이다. 『디도와 이니아스』에서 악테온과 다이아나의 신화를 이야기를 하는 군무진의 콤비네이션도 아주 약간의 난이도 조절을 거쳐 이 특별한 댄서들을 위해 활용된다. MMDG는 집 밖으로 외출하거나 수업참여가 어려운 파킨슨환자들을 위해 실제 수업처럼 따라 할 수 있는 콘텐츠로 3개의 DVD를 제작한 바 있다. 마크 모리스는 이 DVD에 직접 출연하여 『디도와 이니아스』의 동작을 정확히 알려주고 자신의 무용수이자 Dance for PD®의 교사들에게 예술적 조언을 준다.

둘째, Dance for PD®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수행 가능한 동작의 범위에서 조절을 거치지만, 예술적 표현력을 저하시키거나 삭제하지 않는다. 티칭 아티스트가 참여자들에게 주는 동작에 대한 설명은 안무가가 무용가들에게 내리는 방식과 거의 같다. 환자들의 증세완화를 위해 수행하는 기능적 훈련이 아니기에, 동작은 안무자의 의도와 작품의 맥락 안에서 상상력을 확장해야한다. 수업은 마치 발레수업 이 바와 센터로 이루어진 것처럼, 장시간 서 있기 힘든 환자들을 위해 의자에 앉아서 하는 동작 시퀀스 들과, 플로어, 이동이 포함된 플로어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워밍업과 마지막 정리인사를 포함 한다. 마치 무용수를 위한 수업처럼, 움직임을 구성하는 안무자의 의도와 모티브가 제시되며, 동작은 점차 큰 범위와 동작으로 체계적으로 확장되며 진행된다.

물론, 환자들의 상태를 고려하여 움직임의 범위나 무게 중심 활용은 섬세하게 조율된다. 예컨대, 러시아 안 댄스의 경우, 앉았다 일어나는 러시아 안 댄스의 점프 대신, 의자 앉아서 발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며 하체의 근력을 단련하는 우회적 방식을 택한다. 그러나 원래 작품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표현력은 희석 되거나, 동작의 축소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예컨대, 『디도와 이니아스』 작품에서 무용수가 다이애나

18) 윤대성(2017. 9. 1.), 데이비드 레벤탈 인터뷰, 『댄스포럼』 <<https://blog.naver.com/danceforum/221124346984>, 2018. 2. 14.>.

19) R. Sulcas(2007. 8. 25.), “Getting Their Groove Back, With Help From the Magic of Dance”,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07/08/25/arts/dance/25park.html?scp=1&sq=mark%20morris%20parkinson%27s&st=cse>, 2019. 2. 14.>.

여신의 신화를 춤추는 장면에서, 댄서들은 고대그리스의 극장에서 신화를 이야기하는 설정, 즉, 움직임 을 최대한 확장하는 동시에 모리스의 의도대로 움직여야 한다. 예컨대 손이 다이애나가 목욕하던 폭포 를 그리는데, 손은 폭포수가 떨어지는 느낌을 표현한다. 동작이 음악의 가사와 더불어 구체적 스토리 를 이야기하는 장면은, 손의 동작을 가사에 맞춰 명확히 할 것을 요구받는다.²⁰⁾ 티칭 아티스트는 마치 동료 무용수들처럼 참여자들과 함께 동작을 수행하며 춤추는 내내 시범과 내러티브를 설명한다.

모리스의 레퍼토리인 『마블 홀 (Marble Hall)』의 활용에서는 파킨슨 환자들에게 군무의 동작을 활용 한다. 바하의 콘체르토에 맞추어 안무된 이 작품에서는 무용수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흐름, 감성, 시선 처리, 음악의 활용은 물론, 안무자의 의도와 동작이 구성되는 맥락이 설명된다.²¹⁾

Dance for PD®의 세 번째 특징은 참여자의 상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내러티브와 이미지를 적극 적으로 활용한다. 안무가가 자연이나 일상에서 영감을 얻듯이, Dance for PD®의 티칭 아티스트는 안무 가처럼 끊임없이 창작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예컨대, 차이코프스키의 눈송이왈츠에서 교사는 눈이 가득 내린 아침 눈을 만지는 아이들의 설렘, 눈의 차가움, 하얀 겨울의 풍경을 언어적으로 설명하여, 음 악과 함께 시각적 이미지를 연상하도록 독려한다.

무용수들에게 상상의 자극을 위해 다양한 소도구들도 활용된다. 예컨대, 뮤지컬 배우의 드레스 룸을 설정한 콤비네이션에서는 모자나 깃털 등의 소품을 활용한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차용한 이동 동작에서는, 의자를 뒤집어 놓고 젊은이들이 바에서 싸움을 벌인 뒤의 장면을 상상하라고 제안한다. 참여 자들은 짝을 이루어 의자 사이를 걸어 다니며 공간 지각력을 리허설 하는 동시에, 침대들의 패기만만함, 치기어림, 떠들썩한 어울림 등의 흥겨운 기분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미술관을 관람하는 설정에서는 바로 크 회화에서 현대회화까지 관람하면서, 미술가들의 다양한 붓질을 신체를 활용해 재현해 본다. 봄맞이 대청소를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걸레 빨기, 빗자루질, 유리창 닦기 등 다양한 동작 구현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한다.

네 번째, 내러티브와 더불어 Dance for PD®는 캐릭터를 구현하도록 장려한다. 참여자들은 신체적 제한이 있는 환자가 아니라, 무대 위의 댄서처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정된다. 무용수들은 바에 서 치기어린 싸움을 벌이는 10대로 설정되기도 하고, 계절이 바뀌는 순간 대청소를 즐기는 집주인의 역할, 자기 무대를 기다리는 분장실의 배우, 고대 그리스극의 코러스, 탱고나 탭 무용수로 계속해서 변 신한다. 파킨슨환자들이 대부분 고령의 성인임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의 다양한 삶의 경험이 이러한 캐릭 터를 설정하고 연기하는데 풍성한 자원이 된다.

다섯 번째는 마크 모리스의 주요한 특징이기도 한, 음악성의 강조이다. 마크 모리스의 공연이나 수업 과 마찬가지로, MMDG에서 진행하는 Dance for PD® 수업에는 피아니스트가 함께 진행하며, 반주자가 없는 이들을 위해 MMDG에서는 피아노 반주를 CD로 제작하였다. 음악은 Dance for PD®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강사는 춤의 내러티브와 설정에 맞는 음악을 고르도록 교육받는다. 모든 움직임은 운동처럼 시간이나 범위가 아닌 음악에 맞추어 진행되며, 티칭 아티스트의 교육에서도 파킨슨 환자들이 소화하여 맞출 수 있는 정확한 박자를 포함한 음악을 선택하도록 교육받는다.

마크 모리스의 레퍼토리들은 음악과의 결합이 중요한데, 음악의 가사를 표현하는 경우나 악기에 반응

20) Dance for PD® at Home(2013), DVD, Volume I, Mark Morris Dance Group.

21) Dance for PD® at Home(2013), DVD, Volume II, Mark Morris Dance Group.

하는 경우 정교한 동작이 제안된다. 또한 반주자가 없을 경우에 활용 가능한 연주나 음악의 속도 조절, 리듬감과 박자선택도 강조된다. 음악은 단순히 리듬과 박자를 제공하는 반주를 넘어서 상상의 기폭제로 쓰인다. 음악은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 이른 아침의 풍경, 한겨울 눈 폭풍과 차가운 눈의 느낌, 거리 악사가 연주하는 춤곡 등 참여자들의 시공을 넘은 여행을 도와주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한다.

여섯 번째, Dance for PD®는 춤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즐거움을 강조하며, 얼굴근육이 마비되어가는 증세가 특징인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기를 장려한다. Dance for PD®는 예술적 특성을 강조하기에 보호자등 일반인이나 무용수가 따라 하기에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다. 파킨슨병 환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학습의 속도를 감안하면서도, 신체 양쪽의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게 하고, 참여자의 신체 컨디션에 따라, 앉아서도 서서도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춤추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여, 참여자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수업에서 소외된다는 느낌을 갖게 않도록 배려한다.

로벤탈은 참여자들에게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몸의 전체를 사용하라.”고 강조한다.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크게 웃는 것을 장려한다. 이를 위해, 한 개인으로서의 삶의 경험을 활용한다. 예컨대, 한 액서사이즈는 게임 판에서 카드 게임을 하는 설정이다. 댄서들은 자신의 오른쪽/왼쪽으로 카드를 나누고 가위 바위 보를 하고, 팔을 크게 벌려 자신의 패를 쓸어 담으며, 게임에 모든 것을 배팅하는 동작을 보인다. 하지만 야심만만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시도에서는 모든 걸 잃은 상황이다. 댄서들은 각자의 감정 표현을 하도록 독려 받는데, 예컨대, 양손으로 얼굴을 드라마틱하게 감싸거나, 고개를 가로 저으며 머리를 떨군다. 게임은 다시 한 번 시작하고, 이번에는 양팔을 크게 스트레칭하면서 모든 걸 따진다. 댄서들은 아찔한 승리의 기쁨을 제각각 표현하면서 온몸으로 즐거움을 표현한다.²²⁾

이처럼, 참여자들은 무조건적인 “따라하기”가 아닌 자발적 즉흥이나 선택의 순간을 갖게 된다. 마치 안무작업의 공동 작업자처럼, 이들은 자신의 움직임으로 안무에 기여하고,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전면에서 드러낸다. 교육자는 동작을 설명하지만, 움직임의 형태에 집중하지 않고, 방향이나 순서의 정확성에 연연하지 않는다. 더 강조되는 것은 그 동작이 구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나 의미, 감정, 표현적인 해석 등이며, 궁극적으로는 주체성과 주도권을 가진 댄서의 등장을 요구한다.

IV. 결 론

Dance for PD®는 MMDG이라는 전문 무용단이 구상하고 확장시킨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특정 질환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기능적인 치유가 아닌 예술적 표현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는 특징을 지닌다. 초기의 Dance for PD®는 고립감 제어 등 춤이 가져다줄 심리적 효과를 기대하며 시작되었으나, 오히려 춤의 예술적 특성이 환자들의 인지적, 신체적 부분까지 영향을 주면서 의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춤이 어떻게 파킨슨병의 증세들을 완화시키는지,

22) Dance for PD® at Home, DVD Volume 2, Mark Morris Dance Group.

그 임상적 효과에 대한 신경과학적 접근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이 프로그램이 파킨슨병 환자라는 동작수행에 제한점이 있는 이들에게 수행되면서, 어떻게 무용예술의 미학적 가치들을 유효하게 전달하는지를 다루었다. 본 연구자의 분석을 통해, Dance for PD®가 마크 모리스의 예술적 특징들이 반영되는 동시에, 티칭 아티스트와 참여자의 개별적 표현이 개입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Dance for PD®의 성취는 엘리트 무용수가 아닌 주변화 되어있던 신체에 대해서도 무용예술의 소통과 미학적 가치가 유효하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질병을 가지고 움직임의 제한이 있는 대상에게도 춤의 미학이 전달가능하며, 치료가 아닌 예술의 형태로도 치유적인(therapeutic) 영향력을 수행함을 보여준다. 또한 기능성의 향상이나 완수를 위한 움직임(movement) 수업이 아니라, 미학적 맥락이 유지되는 “무용”(dance) 수업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 시니어 인구가 폭증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집중되었던 창의성 교육이나 문화예술교육이 노년층에까지 확장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대상이 수용가능한 난이도 조절이 예술성을 하향 조절할 위험성은 늘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다양한 신체의 조건에 맞추어 움직임을 단순화시키며 미학적 의미까지 단순화시킨다면, 무용예술이 가진 섬세한 복잡성과 즐거움은 위축되기 때문이다. 무용을 예술로서 가르치고, 무용을 예술의 방식으로 표현할 때, 춤이 가지는 음악성, 내러티브, 상상력과 창의성은, 제 역할을 하면서 인간을 확장시킨다.

Dance for PD®에 내재되어 있는 예술가의 미학과 춤의 본질을 분석하면서, 이 연구는 춤이 예술가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회의 더 큰 사고 패턴에 기여하고 그에 반응한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준다. 모든 예술작품과 마찬가지로 Dance for PD®는 여전히 새로운 춤의 형태와 적용에 열려있다. 프로그램의 핵심원칙인 “혁신, 창의력, 예술적 탁월성, 협업, 포괄성, 지역 커뮤니티, 상호존중, 즐거움”은 문화예술 교육뿐 아니라, 오늘날 예술 창작 일반에 적용시킬 수 있는 미덕이기도 하다. 엘리트 예술과 커뮤니티 아웃리치의 경계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이 원칙들은 무용문화예술의 방향성과 가치구현에 대한 적절한 참고사항을 제언해주고 있다.

■ 참고문헌

- Acocella, Joan. (1993). *Mark Morris*.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 이경희(2018). 파킨스를 위한 무용교육프로그램: Dance for PD. 『무용역사기록학』, 51(0): 125-148.
- 이지원(2001). 마크 모리스의 성적 표현과 이미지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7(0): 151-169.
- Houston, Sara and McGill, Ashley(2013). A mixed-methods study into ballet for people living with Parkinson's. *Arts & Health: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5(2): 103-119.
- Siegel, Marcia(1995, Summer). Mark Morris by Joan Acocella. [Review of the book Mark Morris]. *TDR*, 39(2): 189-193.
- 윤대성(2017. 9. 1.). 데이비드 레벤텔 인터뷰. 『댄스포럼』. <<https://blog.naver.com/danceforum/221124346984>, 2018. 2. 14.>.
- Kaufman, Sara(2010, 1. 31.). Mark Morris Taking Dance Works Into the Music World. *The Washington Post*.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10/01/29/AR2010012900202.html>, 2018. 2. 14>.
- Leventhal, David(2004. 8. 22.). *Art Journal*, p.45.
- Macaulay, Alastair(2007. 5. 4.), "Mark Morris descends to the underworld. [Review of the dance Orfeo ed Euridice at the Brooklyn Academy of Music]". *The New York Times*, 4(E).
- Mark Morris Dance Group Official Homepage, <<https://markmorrisdancegroup.org>, 2019. 2. 15.>.
- Sulcas, Roslyn(2007. 8. 25). Getting Their Groove Back, With Help From the Magic of Dance.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07/08/25/arts/dance/25park.html?scp=1&sq=mark%20morris%20parkinson%27s&st=cse>, 2018. 2. 14.>.
- Dance for PD® at Home(2013). DVD, Volume I, Mark Morris Dance Group.
- Dance for PD® at Home(2013). DVD, Volume II, Mark Morris Dance Group.
- Dance for PD® Official Homepage. <<https://danceforparkinsons.org>, 2018. 2. 15.>.

논문투고일 2019. 02. 15
심사일 2019. 02. 20
심사완료일 2019. 03. 16

Becoming a Dancer from a Patient: A Study on the Aesthetical Aspects of Dance for PD®

Jae, HwanJung

Full Time Instruct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his study focuses on Dance for PD® by Mark Morris Dance Group, a dance program for people with Parkinson's disease, to examine how the program upholds the aesthetic values of dance art while negotiating the physical aspects of dance activities for the people with Parkinson's. Through the analysis of its artistic approaches and educational strategies, this research reveals that Dance for PD® inherits the artistic legacies and philosophy of Mark Morris Dance Group. Also, it illustrates how the program invites teaching artists and the participants to intervene in their own ideas and include their artistic decisions as an art-making process. The achievement of Dance for PD® demonstrates that the aesthetic values of dance is valid for all human being in the form of art.

Keywords: Dance for PD®(댄스 포 피디), Mark Morris Dance Company(마크 모리스 무용단), Dance for people with Parkinson's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무용), Cognitive strategies dance(인지전략 무용), Dance for all(모두를 위한 무용)